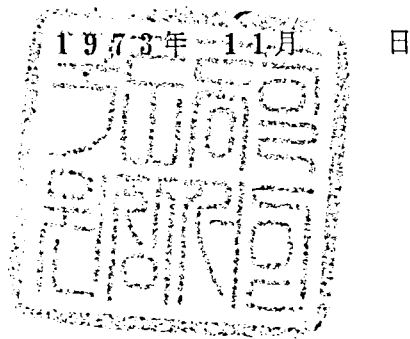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19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全南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者 朴 河 一



I. 序 言 .....	1
II. 北韓의 統一戰略 .....	7
1. 1950 年代의 統一戰略 .....	7
2. 1960 年代의 統一戰略 .....	13
3. 1970 年代의 統一戰略 .....	16
III. 平和統一提議의 虛構性 .....	25
IV. 統一戰略의 和戰兩面性 .....	31
1. 南朝鮮 革命 路線 .....	31
2. 偽裝된 統一戰略 .....	35
V. 北韓의 平和統一 攻勢에 對한 對備策 .....	41
VI. 結 語 .....	49



## I. 序 言

1945年 8月 日本帝國主義의 敗亡은 韓民族에게 自由와 解放의 기쁨을 안겨 주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하나의 잇을 수 없는 民族的 悲劇을 孕胎시켰다. 日本軍의 降伏을 接受하기 爲해 聯合軍司令部 一般命令第1号에 依하여 38線以南에 美軍이 以北에는 蘇聯軍이 進駐하게 됨으로서 事實上 國土는 兩斷되고 單一民族社會는 두동강이 되고 말았다. 특히 蘇聯軍을 등에 업은 金日成一派는 世界赤化政策을 꿈꾸는 蘇聯의 兇惡한 走狗가 되어 北韓을 共產革命의 基地로 衛星國化함으로서 韓半島의 分裂과 民族相殘의 悲劇은 싹트기 始作했다.

共產宗主國인 蘇聯의 指示와 援助下에 共產獨裁政權을 樹立한 金日成은 피비린내 나는 無慈悲한 肅清을 敢行하면서 所謂 그들이 표방하고 있는 民主基地化政策을 遂行하기 爲해 蘇聯과 中共으로부터 莫大한 軍事援助를 받아 軍備를 增強하고 나침내 6.25의 불장난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第二次世界大戰以後 어떤 環境과 動機에 依해서였든 之間에 國土가 分斷된 民族에게는 民族統一이라고 하는 問題가 冷戰의 決算으로 심각하게 提起되었는데 一般的으로 分斷國家의 統一問題를 생각할 때 統一이란 그 民族의 Vital issue이며 同時에 民族進路의 至上課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統一의 方法에는 暴力에 依해 分斷狀態를 變化 또는 克服하는 길이 있겠고 또 다른 是는 民族意志에 바탕을 둔 平和的인 統一方法이 있을 수 있는바 우리 民族이 拆해야 할 南北統一 方法으로서는 當然히 平和的인 統一이 되어야 할것임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다. 그런데 解放된 時期로 부터 現속에 이르기까지 北韓共産黨이 提議해왔던 統一方案은 어

던것이 眞正 그들이 願하는 祖国統一方案인지 識別하기가 매우 어려울 지경이다. 왜냐하면 時期와 環境의 變化에 따라 그들이 主張하는 統一提案의 內容이 달라졌고 그強度에 있어서도 달라져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主張해왔던 統一方案의 內容을 概視컨데 南韓을 共產化統一한다고하는 基本戰略에는 何等의 變化가 있을 수 없었고 戰術面에서 能小能大하게 伸縮性을 보여왔음을 엿볼 수 있다.

例를 들면 解放直後の 混亂했던 時期와 4.19革命을 前後한 不安하고 無秩序했던 時期에는 積極적인 平和攻勢를 펴면서 孟浪한 南北韓 聯邦制案등으로 南北韓이 國際的地位에 있어서 同等하다는것을 認識시키고 既定事實化할려고 애써오다가 5.16革命後에는 突然히 暴力鬭爭 方式으로 轉換하여 갖은 暴力的인 方法으로 挑發을 姿行해 왔다. 이러한 一連의 事態는 韓半島의 緊張을 高潮化하고 戰爭再發의 危險性을 增大시켜 왔으므로 이 悲劇을 避하던서 民族統一의 基礎를 하나 하나 構築해 보자고 하는 民族意志의 發現이 곧 南北會談을 成就시킨 우리의 뜻인것이다. 最近에 와서 北韓은 南北會談에 應하는척 하면서 平和攻勢를 다시 펴오다가 金英柱의 9.28宣言은 또 다시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더구나 10月 29日 金日成이 平壤을 訪問한 불가리아 使節團에게 한 演說에서 그동안 忍耐와 自制·希望과 期待속에서 南北韓이 協商을 通해 反目과 不信을 止揚하고 信賴를 回復해 볼려던 2年間의 解永努力에 終止符를 찍어 버림으로서 南北會談은 霧散된 感이 없지않고 生前에 꿈에서도 그리워하던 家族을 만나보겠다는 1천만 離散家族들에게 形容할 수 없는 失望을 안겨주게 되었다.

이제 다시 冷戰의 暗雲이 韓半島에 밀어 닥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北韓의 對南戰略을 보다 正確히 把握하여 우리의 姿勢를 가다듬어야 할 必要性을 切感케 한다.

南北會談이 始作되어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토록 이 民族이 念願하는 人道的인 問題하나를 解決해 보지도 못한채 北韓의 一方的 보 이코트로 南北의 對話가 斷切된다고 하는것은 平和的 統一을 志向하는 이 民族에게 더없이 不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와 南北會談 과정에서나 否認할 수 없는 歷史的 事實에서 北韓共産黨이 平和的인 民族統一의 眞正한 協商 對象者라고 信賴해 왔던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協商의 테발로 誘導하지 않을수 없는 緊迫한 韓半島의 情勢와 緊張 그리고 그들을 理解시켜야 할 知慧와 自制力이 必要했기에 참고 견디면서 南北會談을 持續해 왔고 또 國際社會에서도 北韓을 現實的인 存在로 認定하게 되었음에도 不拘하고 北韓共産黨은 두個의 얼굴을 가진 野獸처럼 언제나 人導的인 南北交流를 主張하다가도 決定的인 機會만 到來하면 6.25 動亂과 같은 武力挑發을 敢行해 왔다. 한마디로 6.25 動亂은 平和統一을 빙자한 民族的 背信行爲가 아니고 무엇인가?

美帝로부터 南韓을 解放시킨다든가 南韓으로부터 外軍을 撤収시켜야 한다는 主張은 얼핏보기에 民族的 自主性을 표방하고 있는것 같으나 其實은 그들의 赤化統一에 決定的인 沮害要素가 되는 勢力을 南韓에서 除去하여 武力 赤化統一을 達成하겠다는 意圖以外는 아무것도 없다. 美軍의 撤収직후에 6.25 動亂이 勃發했다는 歷史的 事實을 우리는 記憶하고 있다. 金日成은 <祖國의 平和統一>이라는 對南平和 攻勢의 旗號에서 軍事力을 強化한 後 韓國戰을 도발해 놓고도 1953年 7月의 休戰直後부터 또다시 平和統一의 戰陣的 口號를 내세우는

것을 보면 和戰兩面性에 바탕을 둔 그들의 統一戰略을 実感하게 한다.

60年代에 접어들면서 南北間의 交流와 最高民族會議의 組織을 提案해 오다가 北韓은 갑자기 態度를 바꾸어 1962年 末부터 本格的인 戰略準備를 서두르게 되었는데 1962年 12月 北韓 노동당 제 4기 5차 중앙전원 회의에서 「조성된 경제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는 政策을 決定했고 同會議에서 7個年 인민 경제계획을 대폭 수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軍事力은 強化해야 한다고 結論을 내리면서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병진노선을 採択함과 同時에 全人民의 武裝化 全國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軍의 現代化라는 四大軍事路線을 宣言했다. 이 軍事路線의 決定은 武力南侵을 爲한 戰爭準備의 決意로서 注目되려니와 이 政策과 對南도발상은 韓半島의 危機와 緊張造成에 重大要因이 되고 있다. 表面上으로는 平和的인 祖國統一을 追求하는 것 같이 宣傳하면서도 實際에 있어서는 武力統一을 圖策하고 있는 北韓의 統一政策의 虛構性은 共産黨의 綱領에서나 黨大會 決議 등에서 如實히 폭로되고 있다. 한가지 例로서 1965年 4月 1日 인도네시아를 訪問하여 「알리 아르함」 社會科學院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가운데서도 이를 充分히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祖國의 統一 조선혁명의 全國的 勝利는 결국 3大力量의 準備에 달려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첫째로 공화국 북반부에서 社會主義建設을 잘하여 우리의 革命基地를 政治 經濟 軍事적으로 더욱 強化하는 것이며 둘째로 南조선 인민들을 政治적으로 覺醒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서 南조선이 革



命力量을 強化하는 것이며 셋째로 조선 인민과 國際革命力量과의 團結을 強化하는 것이다. 우리黨은 이제까지 革命力量을 強化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鬪爭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韓半島의 統一이 北韓地域의 革命準備, 南韓에서의 共產主義 革命勢力의 成長 그리고 國際的인 北韓支持勢力의 擴大등 三大力量의 成就에 달려있다는 것인데 北韓의 革命力量에 關해서는 북한 노동당 제 5차 당대회에서 行한 金日成의 報告에서 成功的으로 遂行되고 있다고 示唆된 바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볼때 北韓 共產主義者들이 제아무리 그들의 統一 原則이 自主 民主 平和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떠들어 대고 있지만 그들의 음페된 意思는 「南韓에서의 革命」에 두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오늘날 그들이 내걸고 있는 平和統一提案 亦是 단순한 國土分斷의 再統一이나 民族分裂의 再結合만을 意味하지 않고 全韓國을 共產主義革命에 依하여 赤化統一을 實現코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統一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것이지만은 北韓의 對南戰略의 戰術的 變化를 理解함으로서 우리의 對應策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北韓의 統一政策樹立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게 될 獨立變數로서의 國際情勢와 韓國의 國內情勢는 北韓의 統一政策을 反射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들 相互間에 作用될 수 있는 相對性은 우리의 統一政策을 定立하고 韓民族의 統一을 모색하는데 有益하고도 緊要한 研究 對象이 되리라 생각된다.

本 論文에서 究明코자 하는 北韓의 統一戰略의 兩面性을 考察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基準에 依한 時代区分이 可能하리라 보아진다. 즉

- ① 解放으로 부터 6.25 動亂直後까지 ( 1945 ~ 52 )
- ② 休戰으로 부터 4.19 革命까지 ( 1953 ~ 60 )
- ③ 4.19 革命으로 부터 5.16 革命까지 ( 1960 ~ 62 )
- ④ 民政移讓으로 부터 現令까지 ( 1963 ~ 現在 )

로 나눌 수 도 있고 더 크게 区分해서 1950 年代 ( 1945 ~ 53 )

1960 年代 ( 1953 ~ 65 ) 1970 年代 ( 1965 ~ 現在 )로 区分할 수도

있는바 便宜上 後者の 時代的 区分이 北韓의 統一戰略을 理解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Ⅱ.北韓의 統一戰略

### 1. 1950年代의 北韓의 統一戰略

韓民族의 民主的 統一政府를 樹立하려던 努力은 水泡로 돌아가 버리고 UN總회의 決定에 依하여 48年 5月 10日 UN臨時韓國委員團이 接近可能한 南韓地域에서 總選舉가 實施되어 制憲國會가 構成됨으로서 名實共히 大韓民國 政府가 樹立되었고 同年 12月 12日 第3次 UN總會에서 「UN監視下에 合法政府가 樹立되었으며 同政府는 韓國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宣言하게 되었다. 이에 反하여 全韓總選을 拒否하고 UN臨時韓國委員團의 接近을 反對했던 北韓共産黨은 同年 8月 25日 最高人民會議을 構成하고 9月 9日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宣布하여 事實上 民族分裂과 國土分斷을 圖策했던 것이다.

北韓 共産黨은 機會만 있으면 南韓에서의 美軍撤収를 主張하게 되었는데 이 主張이 노리고 있는 目的이란 自명한 것이다. 1949年 9月 10日 金日成이가 最高人民會議에서 發表한 政綱속에 外來侵略 勢力으로 부터 國土를 防衛하고 北朝鮮에서 이미 戰取한 民主改革 成果를 방위하기 위하여 共和國 政府는 人民의 軍隊를 모든 方面에서 強化한다고 밝힘으로서 처음으로 北韓이 南韓에 對한 武力赤化統一을 示唆했던 것이다. 1950年 6月 7日 北韓 共産黨이 내놓은 祖國 戰線呼訴文 역시 計劃된 南侵意圖를 偽裝한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呼訴文의 內容을 간주려 본다면

첫째, 平和的 統一에 必要한 모든 條件과 節次를 討議 決定하기 위하여 南北諸政黨 社會團體 代表者 會議을 6月 15日부터 17日까

지 海州市 또는 開城市에서 開催할것.

둘째, 南韓 政党中央 韓国民主党和 民主国民党的 2個政당은 協議會의 對象에서 除外할것.

셋째, 統一選舉를 8月 5日부터 8日까지의 사이에 實施 할 것 등이었다. 이것은 6·25의 南侵 陰謀를 위장하기 위한 提言이었음은 다시 말할 必要조차 없다. 6·25動亂은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政策으로서 그들의 当初 計算은 攻擧를 開始하여 20日이면 釜山까지 能히 攻略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8·15解放 5週年은 서울에서 盛大하게 記念行事를 할 計劃이었다. 그러나 UN의 積極的인 支援과 UN軍의 參戰은 戰勢를 送轉시켜 그들의 侵略企圖는 完全히 失敗로 돌아간 것이 確實해지자 가카스로 休戰에 同意하여 破滅을 모면하게 되었다. 그러나 金日成의 休戰同意는 永久的으로 再侵意思를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시 戰力을 強化하여 雪辱戰을 敢行할 수 있는 時間과 機會를 벌자는 속셈인 것이었다. 故로 북한 共產主義者들은 平和統一의 前提條件으로 「조선 문제는 조선사람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도록 할것」을 主張하면서 南韓으로 부터 美軍 撤收를 要求했다. 中共과 蘇聯에 接境하고 있는 有利한 地政學的 立場에서 韓國을 國際的 支援으로 부터 孤立시켜 軍事的 空白地帶를 造成코자 美軍撤收와 UN機關의 撤收要求를 되풀이 해왔다.

이런 要求는 1946年 以來 오늘에 이르기까지 北한이 主張하는 平和統一論의 一貫된 大前提였다. 그들은 北한을 南北統一을 위한 <民主基地>로 규정하고 이것을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強化한 후 이곳을 基地로 하여 南韓에다 親共產主義 革命을 유발시켜 革命政權이 樹立되면 이 勢力을 北한의 社會主義 力量과 平和的으로 統合하여 南北統一을 爭取한다는 것을 目標로 하고 있다.

戰爭期間에는 平和的인 統一提議는 나올 수 없었지만 休戰協定이 締結된 直後인 1953年 8月 27日 UN 特別總會에서 統韓을 위한 南北韓 政治會談 問題를 討議한 끝에 參戰國의 共同發議로 10月 26日부터 板門店에서 政治會談을 위한 豫備會談이 열렸으나 아무런 結果를 見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954年 1月 25日 베르린에서 開催된 美, 英, 仏, 蘇 등 4大國 外相會議에서 韓國統一 問題와 인도차이나 休戰 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關係國 會議을 제네바에서 開催하기로 合意함으로써 同年 4月 26日부터 16個 參戰國과 蘇聯 中共 北韓代表들이 參席한 가운데 제네바 政治會談이 開催되었다. 그러나 共產側은 意識的인 政治宣傳과 二個의 韓國論을 위한 工作에만 熱中할뿐 民族 統一에 關해서는 何等의 誠意를 보이지 않은채 6月 15日 이 會談을 다시 決裂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 會談에서 北韓代表 南 日이 提案한 統一方案을 보면

南 日의 統一方案 1954.4.27	南 日의 修正案 1954.6.15
<p>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조선의 급속한 부흥과 독립 및 통일민주 국가를 창설할 목적으로 다음 사항을 촉진한다.</p> <p>가. 전조선주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시 기반 위에서 통일정부를 형성할 국회의원 총선거를 실시한다.</p> <p>나. 자유 총선거를 준비하고 남북조선의 경제 및 문화적 접근</p>	<p>제네바會議 參加國은 統一獨立 民主朝鮮의 創設을 基礎로 하는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爲한 合意를 追求하는 見地에서 努力을 繼續한다는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p> <p>朝鮮에 있어서의 平和的인 條件을 保障하기 위하여</p> <p>1. 關係各國 政府는 可能한 限 빨리 比例原則에 立脚한 監視下에 朝鮮에서 全外國 軍隊를 撤収시키기 위한 方法을 講究토록 該當國家</p>

南 日 의 統 一 方 案 1954.4.27	南 日 의 修 正 案 1954.6.15
<p>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와 대한민국 국회에서 각각 선출된 대표 및 남북조선의 가장 큰 민주주의 사회단체의 대표에 의하여 전조선 위원회를 조직한다.</p> <p>다. 전조선위원회는 선거법 초안을 준비한다.</p> <p>라. 전조선위원회는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및 통행서신의 자유교류를 실시할 대책을 즉시 강구한다.</p> <p>( 54.5.22 주은래에 의해 추가 제안됨 )</p> <p>2. 6개월 이내에 일체의 外國軍隊를 철수시킨다.</p> <p>3. 극동의 평화유지에 관심을 갖는 제국가는 조선통일의 급속한 해결에 필요한 조건을 마련해줄 필요성을 인정 할것.</p> <p>参考 : 이 提 案 의 特 色 은 全 朝 鮮 委 員 會 를 組 織 할 것 과 中 共 의 追 加 提 案 으 로 中 立 國 監 視 委 員 團 을 組 織 하 자 는 點 을 들 수 있 다 .</p>	<p>에 勸 告 한다 . 撤 退 時 期 는 제네바會議 參 加 國 의 合 意 에 依 한다</p> <p>2. 北 朝 鮮 과 南 朝 鮮 은 , 1年 以內 에 各 各 兵 力 을 10萬 以 下 로 減 軍 한다 .</p> <p>3. 戰 爭 狀 態 의 漸 次 的 解 消 과 雙 方 協 力 의 平 和 的 態 勢 에 의 轉 換 問 題 를 論 議 하 고 또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國 과 大 韓 民 國 政 權 에 適 合 한 協 定 을 締 結 토 록 提 議 하 기 위 한 南 北 朝 鮮 代 表 委 員 團 을 構 成 할 것 .</p> <p>4. 朝 鮮 民 主 主 義 人 民 共 和 國 과 他 國 家 間 에 締 結 된 條 約 은 軍 事 的 義 務 가 包 含 되 어 있 지 않 는 限 그 것 은 朝 鮮 의 平 和 的 統 一 과 兩 立 되 지 않 음 을 認 定 할 것 .</p> <p>5. 南 北 朝 鮮 의 交 流 回 復 條 件 을 만 들 기 위 하 여 經 濟 및 文 化 的 關 係 ( 交 易 , 清 算 去 來 , 運 輸 , 境 界 線 關 係 , 住 民 活 動 의 自 由 , 郵 便 物 交 換 ) 의 自 由 文 化 및 科 學 的 關 係 의 確 立 에 合 理 的 方 法 을 講 究 하 고 履 行 하 기 위 한 全 朝 鮮 委 員 會 를 構 成 할 것 .</p> <p>6. 제네바會議 參 加 國 은 朝 鮮 의 平 和 的 發 展 을 保 障 하 고 또 한 統 一 獨 立 , 民 主 國 家 로 서 의 朝 鮮 의 平 和 的 統 一 課 業 을 促 進 시 키 는 條 件 을 創 造 하 는 必 要 性 을 認 定 할 것 .</p>

以上の内容과 같이 북한代表 南 日이가主張하는 要点은 美軍을 포함한 外國軍을 撤収시키고 南北韓이 对等한 資格에서 全朝鮮委員會와 같은 全權機構를 構成하여 여기에 民主主義 社会団体の 代表를 参加시키자는 것이다.

이 무렵에 우리의 注目을 끄는 것은 6월 15日 韓國戰參戰 16 個國들이 共同宣言으로 밝힌 韓國統一과 獨立 및 自由를 위한 基本原則으로서 첫째 UN은 憲章에 따라 侵略을 擧退하고 平和와 安全을 回復하기 爲하여 集團行動을 取하며 韓國에 있어서 平和的 解決을 摸索하도록 周旋할 수 있는 充分하고 正當한 權限이 賦与되어 있다.

둘째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을 樹立하기 爲하여 UN監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따라 代表者가 選出되는 國會議員의 眞正한 自由選舉가 韓國에서 實施되어야 한다고 主張하고 이 基本的 原則이 共產側에 依해 拒否되는 限 如何한 論議도 無益하다고 했는데 共產側은 이의 受諾을 拒否했던 것이다.

同年 6月 22日 북한의 祖国戰線 中央委員會 第34次 會議에서 採択된 呼訴文에서도 南 日이가 提案한 統一方案의 内容이 반복되고 있었으며 그後 계속해서 提案된 북한의 統一方案들도 別로 새로운 것은 없었다.

1954年 10月 30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1期 第18次會議에서 採択된 呼訴文에는

① 平和的 統一問題를 討議하기 위한 南北韓의 共同會議를 평양 또는 서울에서 1955年 以內에 召集할것 ② 前記會議 召集에 관한 問題와 南北朝鮮間의 經濟 및 文化交流 通商, 通行, 書信往來의 開始에 관한 問題를 討議하기 爲하여 南北朝鮮 代表者會議를 1955年

2月에 板門店 또는 開城市에서 召集할것 등이 提示되고 있으며 56年 4月 28日 北韓勞動黨 第3次 黨大會에서 採択한 平和統一 宣言에서도 ①朝鮮의 統一政府는 全朝鮮人民의 總選舉에 依해 樹立되어야 하며 ②平和的 統一을 促進시키기 爲하여 現存하는 南北韓의 不自然한 障壁이 除去되어야 하며 南北人民間의 相互接觸과 協商이 이루어져야 하고 ③美帝를 反對하고 平和統一의 敵을 反對하는 共同鬪爭을 強化해야 하며 ④朝鮮에서의 平和維持와 朝鮮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國際的 協定이 締結되어야 한다고 했고 同年 11月 7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12次會議에서 採択한 大韓民國 民議員과 全体 韓國社會 人士에게 보내는 書翰에 나타난 統一方案에서도 ①平和統一을 爲하여 一切의 外國軍隊를 撤収할것 ②南北韓의 軍備縮小會議를 開催할것 등을 내세웠고 58年 2月 5日 北韓의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提案」에서도 ①朝鮮에서의 緊張狀態를 緩和하고 朝鮮問題를 平和的으로 解決하기 爲하여 南北朝鮮의 一切 外國軍隊를 撤去시킬것 ②一切의 外國軍隊가 撤去한 後 一定한 期間內에 中立國 監視下에 全朝鮮自由選舉가 實施될것. ③南北間의 經濟 및 文化交流와 全朝鮮選舉에 관한 問題등을 討議하기 爲하여 同等한 基礎위에서 南北代表者會議를 召集할것 ④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이미 8萬名의 武力을 縮少한바 있거니와 今後 早速한 期間內에 南北朝鮮의 軍隊는 各各 最少限度로 縮少되어야 한다고 했고 59年 10月 26日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2期 第6次會議에서 副首相 南日은 一切의 外國軍隊를 撤収할 것이며 最短期間內에 南北朝鮮軍隊를 各各 10萬以下로 縮少하고 各分野에 結친 相互交流를 爲해 常設委員會(政黨 社會團體代表와 南北韓의 經濟代表로 구성되는)를 構成하자고 提案했다.

이상의 數多한 提案에서 볼 수 있는 北韓의 一貫된 主張은 美軍을 撤収해야 하고 軍備를 縮少해야 하고 南北間의 經濟, 文化, 社會 등 各方面에 結친 相互交流를 實現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한마디로 6·25의 南侵은 武力 赤化統一의 本色을 들어낸 否認할 수 없는 歷史的 証據임에는 틀림이 없다. -12-



## 2. 1960年代의 北韓의 統一戰略

1960年代는 國際政治의 次元에서 一大轉機가 마련된 時期라고 할 수 있다. 東西對決에 있어서 制限된 協力關係인 平和共存의 모색이 不可避하게 要求되어졌고 아울러 東阿地域의 新生諸國들이 大量으로 國際社會에 登場함에 따라 이들의 發言權이 增大되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東西의 틈바구니에서 이데올로기에 執着했던 中小國들도 自國의 實利를 위해서 어느 程度 自主性을 갖게되었으니 이것이 이른바 國際政治의 多元化 趨勢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變化와 함께 南韓에서 일어난 4.19革命은 金日成에게는 豫期치 않은 좋은 찬스를 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래서 全面的인 平和攻勢를 取했으나 5.16革命後에는 暴力에 呼訴하는 強硬一辺倒로 탈바꿈을 했던 事實을 想起할 수 있다.

1960年 3.15不正選舉로 말미암아 惹起된 4.19革命을 共産黨이 主導한 人民의 鬪爭으로 規定하고 反美鬪爭을 煽動하는 聲명을 發表하는 등 갖은 方法과 手段으로 南韓의 混亂한 社會秩序에 편승하여 南韓에 붉은 政權을 樹立하거나 아니면 革新的인 容共政權이 들어서게 되면 그들이 노리는 韓半島의 赤化統一은 容易하게 達成될 것으로 判斷하여 4月 27日 社會團體指導者 連席會議를 召集하고 다음과 같은 聲明書를 發表했다. 序頭에서 지금 우리 祖國의 將來와 民族의 運命을 決定할 가장 緊迫하고 艱難한 時期라고 前提하고 祖國의 平和的 統一에 關한 提案으로

첫째 南韓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의 即刻的인 撤退

둘째 南北의 平和的 統一의 問題를 討論하기 위하여 南北의 諸政黨 社會團體 連席會議를 召集 開催할것.

셋째는 南北間의 自由로운 往來를 신속하게 實現할것.

네째 南北韓의 經濟代表로서 南北聯合 經濟委員會를 構成할것.

다섯째 如何한 外國의 干涉도 받지 않고 全体朝鮮人民의 自由로운 意思에 따라 南北韓의 選舉를 實施할것 等を 내세웠지만 4.19革命이 共産黨의 運動이 아니고 오직 民主守護를 위한 愛國學生들의 義舉였기 때문에 잠시 混亂했던 社會秩序는 安定되고 第2共和國이 탄생하게 되자 北韓 共産黨의 野心은 산산이 깨지고 받았다.

그러자 金 日成은 다시 8.15 慶祝演說에서 從來의 提案에 새로운 南北聯邦制를 첨가하여 統一案을 내놓았는데 그 內容을 볼것 같으면

첫째 어떠한 外國의 干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할것.

둘째 아직도 南韓當局이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셋째 萬一 上記 提案등을 南韓政府當局이 同意치 않는다면 南北朝鮮 實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것.

네째 南北朝鮮 文化使節來往과 科學文化 藝術 團體等 모든 分野에서 交流를 다시 한번 提議한다.

다섯째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即時撤退를 要求하며 南北朝鮮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少할것.

여섯째 以上의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合議할 것을 南朝鮮當局과 政黨社會團體 및 個人 人士에게 提議한다는 것들이다.

이 聯邦提案은 南北韓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維持하므로써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保障하며 南北間의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

으로 調節하기 위해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 民族委員會를 設置하는 것인데 이 主張이 理論的 矛盾性은 더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實際적으로 國際社會에 많은 聯邦制國家가 存在하고 있지 만은 北韓이 主張하는 異質적인 二體制間의 聯邦制는 歷史적으로 그 例를 찾아 볼 수가 없고 그의 實現可能도 全無한 것임에도 不拘하고 平和적인 統一을 希求한다고 하는 宣傳으로 侵略者의 好戰性을 國際社會에서 扞拭해 불려 고하는 New image making의 수작이며 同時에 南北韓이 同等한 資格이 있다고 하는 것을 強調하기 위해서이지 決코 實現될 提案으로 생각해서 主張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다가 1961年 5.16 軍事革命이 勃發하자 北韓은 大端히 唐慌한 나머지 처음에는 5.16 革命을 支持하는 寸劇을 빚기도 했다.

그들은 放送을 통해 「腐敗한 張勉괴뢰 政權은 마침내 打倒되었다. 16日 새벽 3時를 期하여 軍事政變을 斷行한 南朝鮮軍人들은 行政, 立法, 司法 등의 政府檢閱들과 放送局을 完全히 掌握하였다…… 青年學生들과 人民들이 張勉政權을 打倒한 軍事政權을 支持환영하는 群衆示威를 進行하고 있다」고 好意的 反應을 보이다가 軍事革命이 反共을 國是의 第1로 하고 있음을 알고 金日成은 代表團을 이끌고 急히 모스크바를 訪問하여 7月 7日 蘇聯과 「友好協調 및 互相援助에 關한 條約」을 체결했고 歸路에 中共에 들러 蘇聯과 똑같은 內容의 軍事條約을 체결했다. 이 條約의 性格은 韓美 相互防衛條約과는 性格面에서 判異하게 달리 締約國 當事者間에 自動的 乃至 義務的인 介入 義務發生을 規定한 적극적인 軍事同盟條約으로서 北韓과 蘇聯間의 條約第1條와 北韓과 中共間에 締結된 友好協調 및 互相援助에 關한 條約 第2條에서 「……締約國一方이 어떤 國家 또는 國家聯合으로 부터 武力侵攻을 當함으로서 戰爭狀態에 處하게 되는」 境遇에 締約相對方은 지체없이 自己가

保有하고 있는 온갖 手段으로서 軍事的 및 其他원조를 提供한다」고 되어있다.

60年代 구라파의 東西解氷부드와는 달리 韓半島에서 造成되고 있는 緊張感은 날로 高潮되어 갔다. 北韓은 7個年の 인민경제계획을 大幅修正하여 重工業 爲主의 政策目標을 設定하는 한편 62年 12月 軍事담당 副相인 김 광협을 團長으로한 軍事代表團을 蘇聯에 派遣하여 軍事的 支援을 約束받으려 했고 同年 12月 10日에 열린 북한 노동당 제 4기 5차 중앙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 방력을 가일층 강화함에 대하여」란 議題下에 独自の 戰爭準備에 박차를 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 共產主義者들은 半和統一路線을 採択한지 不過 1年後에 戰爭準備가 不可避하다는 結論을 내리고 侵略的 軍事體制를 整備하기 위해 四大軍事路線을 決定했다.

이는 武力南侵을 위한 戰爭準備를 宣言한것으로 統一戰略에 對한 性格變化의 一面을 말해주는 것이다.

7個年 人民經濟 計劃을 3년 더 연장하면서 까지 經濟建設과 國防建設의 병진노선을 強行하고 同時에 全人民의 武裝化 全地域의 요새화, 全軍의 간부화, 全軍의 現代化를 達成하기 위해 GNP 25% 以上을 軍事費로 投入하면서 武力增強에 狂奔해 왔다.

이 무렵에 北韓이 直接間接으로 韓國에 對하여 저질은 武力挑発은 해야될 수 없이 많았고 이러한 事態發生으로 韓半島에서의 緊張은 世界에 類例없는 冷戰地帶로 緊張만이 高潮되어 갔다.

### 3. 1970年代의 北韓의 統一戰略

아시아에 있어서의 強大國關係는 數年에 걸친 새로운 힘의 配置

에 따라 漸次 多边的으로 變化되어가고 있다. 이 地域의 支配勢力 關係는 50年代의 兩極化 體制에서 60年代의 三角關係를 거쳐 70年初인 지금에는 四極關係로 均衡化되어가고 있는 것이 現時點에서 본 아시아의 國際政治의 權力構造라 하겠다. 勢力均衡과 強大國關係의 이와 같은 變化는 아시아地域 國家들에게 對內外的으로 強한 衝擊을 주워 이들 國家들로 하여금 그들이 位置하고 있는 複雜한 狀況과 利害關係 및 政策을 再檢討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는데 아시아國家들의 이와 같은 強大國들에 對한 對應態度와 함께 強大國 스스로도 60年代와는 다른 類型의 政策代案(Policy Alternatives)를 모색하고 있는것이 現狀이라 하겠다.

70年代는 對決로부터 協鹿으로라는 상징적인 口號에서 느낄수 있는것 처럼 60年代의 限定的인 平和共存體制를 積極적인 妥協과 協商으로 發展시킴으로써 相互利益이 된다고하는 필연적인 고려下에서 若干 國家들은 果敢한 政策選擇을 하기도 했다.

美國의 對中共 接近政策이나 美國의 對蘇關係 正常化 政策의 能動的인 交渉과 協商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戰後의 冷戰論理가 지침없이 분어져가는 것을 느껴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이데올로기의 名分이 송두리채 없어져 버렸다는 뜻은 分明이 아니것 같다. 對決에서 對話를 찾는 強大國의 利害關係와는 달리 對話의 曄에서 對立과 緊張이 高潮되고 있는 국제정치적 側面도 曄해서는 안될 曄안다.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外部的인 環境變化는 필연적으로 南北韓關係에 若干의 變化 다시 말하면 外部世界의 變化로부터 어떠한 影響도 받지 않겠다고하는 意識的인 閉鎖的 反應과 外部의 變化를 認識하면서 自己의 生存과 發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關係를 設定해 불려 開放的인 反應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北韓은 閉鎖的인 狀態下에서 그동안 大軍事 此線에 依한 戰爭準備가 完了되어 그들은 決定

的인 時期만을 노리고 있으므로 이에 對한 韓國의 對應은 相對的으로 不信과 緊張만을 더해왔을 뿐이다. 萬若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戰爭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民族은 더없이 不幸한 民族이 될 것이며 民族의 念願인 統一은 數十年뒤로 미루워지게 될 것임은 自明한 일이다. 이러한 民族運命의 分岐點에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韓半島에서 다시는 戰爭이 일어나지 않도록해야 같은 民族의 良心과 民族의 生存을 위한 正當한 主張이며 슬기로운 知慮라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이다. 民族相殘의 悲劇을 되풀이 말자고 하는 우리 의 가목한 뜻이 四半世紀 동안 斷切된 南北의 障壁을 풀어 마침내 人道的인 諾設 問題의 解決을 위한 南北赤十字會談의 開催를 성공시켰고 이것이 더 發展해서 보다 高次元의 南北會談 기구로서 南北調節 委員會까지 構成하여 세법 統一의 論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했더니 突然히 지난 9.28 宣稱으로 南北會談이 끊기고 말았다. 南北會談에 처음부터 큰 期待를 저 性急한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는가마는 北韓의 一方的인 會談拒否로 因하여 이 民族이 느끼게 되는 悲哀와 背信 當한것 처럼 치밀어오는 분노는 참기 어려운 程度다. 다시 한번 共産黨의 上투적 手法에 警覺心을 갖게 할 뿐이다.

70年代에 접어들어서도 北韓의 統一戰略에 어떤 變化가 생긴것은 거의없고 오히려 지금까지 提案해오던 統一案을 綜合整理해 좋은 뜻 한 그들의 8個項目에 걸치 統一方案을 考察해 보는 것이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71年 4月 12日 最高人民會議에서 外務相 許 淡에 依해서 밝혀진 北韓의 統一方案 內容을 보면

첫째 南北에서 美軍을 撤収시켜야 한다.

둘째 美軍이 撤去한 다음 南北韓軍隊를 10萬 또는 그 以下로 줄인다.

셋째 韓美 相互防衛 條約과 韓日條約을 비롯하여 「民族의 利益에 背馳되게」韓國이 外國과 締結한 모든 條約과 協定을 폐기하고 無効로 宣布해야 한다.

넷째 自主的이며 民主主義的 基礎위에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하기 統一의인 中央政府를 세워야 한다. 이 總選舉는 南韓에서 美軍이 불려간 다음 外部勢力의 어떠한 干涉도 없이 實施되어야 한다.

다섯째 自由로운 南北 總選舉를 위해 南北韓의 全地域에서 各政黨 社會團體 및 個別的 人士들이 政治活動을 벌일 수 있는 完全한 自由를 保障하며 祖國統一을 위해 鬪爭했다는 罪로서 南韓에서 逮捕投獄된 모든 政治犯들과 愛國者들을 無條件 석방해야 한다.

여섯째 完全한 統一에 앞서 必要하다면 現在와 같은 南北의 判異한 社會制度를 그대로 두고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韓 聯邦制를 實施하자.

일곱째 聯邦制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南北間의 通商과 經濟的 協助 科學 文化 藝術 體育등 여러分野에 걸쳐 相互交流과 協助를 實現하여 南北間의 文化交流과 人士往來를 實現하자.

여덟째 以上の 問題를 協議하기 위해 各政黨 社會團體들과 全體人民의 性格을 가진 사람들로서 南北韓 政治協商會議을 進行하자.

이 政治協商會議는 雙方이 合意하는 住意의 場所에서 어느때나 召集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의 主張은 하나도 새로운 것일 수도 없고 또 眞正으로 이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客觀性있는 提案도 아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北韓이 現存까지 數많은 提案을 해왔지만 항상 對内外의 情勢를 考慮하여 赤化統一에 그것이 有利하게 奇與되고 作用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利害得失의 計算下에서 行해 졌다.

이번의 8個項目의 方案도 그 例外가 아닌것은 두 말을 必要가 없다. 特히 이 8個項目의 統一方案이 나오게 된 北韓自身の 對內的 背景을 살펴보면 現在 北韓은 무엇보다도 戰爭一辺倒의 政策을 遂行해가기 위해서 對內的으로 緊張과 危機意識을 造成해야 할 必要性과 緊張緩和에의 追求라고 하는 國際大勢에서 好戰的 集團이라고 하는 烙印을 씻고 北韓도 平和志向的인 路線을 追求하고 있다는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켜야 하겠다는 要請이 두個의 相反된 要求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이냐에 대해 北韓의 焦燥感과 속임수는 高度에 達한 感이 있다. 北韓은 意圖的으로 韓國이 受諾할 수 있는 可能性을 미리 排除한 內容으로 오직 宣傳 効果만을 위하여 統一方案을 내밀게 되는데 이것은 韓國에서 受諾할 수 없는 함정을 미리 파놓고 民族的 平和統一案을 拒否하는것은 오히려 南韓으로서 平和統一이 아니라 戰爭에 依한 統一을 韓國이 追求하는 것으로 逆政變을 할 根拠를 만들자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北韓은 戰爭準備가 不可避하다는 口實을 만들기 위한 手法인 것이다. 北韓 住民들을 戰爭準備에 철저히 動員하기 위해서 韓國에 對한 憎惡心을 極度로 誘發하고 있는 것도 쉽게 짐작이 가는 問題이다.

이토록 民族을 分裂시키고 民族의 가슴에 銃뿌리를 겨누는 北韓 공산당의 罪過야 말로 民族의 이름으로 膺懲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이와 같은 民族分斷의 悲哀와 危險을 除去하고 National Unification의 基盤을 構築하기 위한 意志의 具現이 1971年 8月 12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總裁의 提議에 따라 이루어진 南北赤十字談話이다. 이를 契機로 해서 北韓은 점차 平和統一을 표방하는 積極的인 態度를 보이기 始作했는데 72年 1月 金日成의 新年辭와 1月 6日 祖国 平和統一 委員會 委員長 李 克魯의 對話와 1月 10日



요미우리 記者와 質疑問答式으로 發表된 金日成의 統一構想을 간추려 보면

① 民族의 内部問題인 祖国 統一問題는 外部의 干涉에 依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들 自身の 손에 依하여 그리고 戰爭의 方法이 아니라 平和的인 方法으로 解決되어야 한다.

② 緊張事態를 除去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停戰協定을 南北사이의 平和的 協定으로 바꾸는 것이 必要하다.

우리는 南北이 平和協定을 맺고 南朝鮮에서 美帝侵略軍을 撤去시킬 條件에서 南北朝鮮의 武力을 大幅縮減 것을 主張한다.

③ 南北 赤十字團體들 사이의 會談을 成事시키는 것은 祖国의 平和統一에 有利한 分畀氣를 造成하게 된다.

④ 南北 사이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고 祖国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

⑤ 民主共和黨, 新民黨, 國民黨을 비롯한 모든 政黨들과 아무때나 任意의 場所에서 會談할 用意을 가지고 있다. ……祖国統一問題를 平和的으로 풀자면 南北朝鮮의 여러 政黨들 사이에 祖国統一에 관한 政見들을 交換하고 平和統一의 合理的인 方途를 摸索하기 위한 變務的인 또는 多務的인 協商들을 活潑히 進行해야 할 것.

⑥ 南北協商과 接觸을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문을 열어 놓고 있다.

⑦ JN은 朝鮮問題에 관한 모든 決議들을 取消하여야 하며 그

형지 않으면 朝鮮에 대하여 正當한 方針을 取함으로서 從來의 非法的 決議들이 無効로 되게 하여도 좋다.

UN은 마땅히 UN의 이름 밑에 南韓을 強占하고 있는 美軍을 撤去시키며 UNCURK를 解体하기 위한 措置들을 取해야 한다.

UN은 朝鮮問題에 대한 어떠한 內政干涉도 그만 두워야 한다는 等인데 北韓은 統一의 基本原則을 새로운 情勢에 적응시켜 具體化한데 不遑하다.

金日成은 72年의 新年辭에서 아시아에서의 強硬한 反美國爭의 展開로 Nixon主義가 沈滯狀態에 빠져있으며 동시에 日本軍國主義의 復活에도 큰 打撃을 주었다고 指摘했고 또 中共의 UN加入에 對하여 높이 評價하면서 國際共產主義運動의 強化라는 面에서 赤化統一에 有利한 國際環境의 造成이라고 말했다.

72年 7月 4日 서울과 平壤에서 各各 同時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은 南北의 統一問題解決에 있어서 새로운 契機를 마련해 주는 것 같기도 했다.

① 祖國統一의 原則으로

(가) 自主的 解決

(나) 平和的으로 實現

(다) 民族的 大團結圖謀

② 緊張狀態緩和, 信賴分困氣 造成

③ 多方面的인 諸般交流實施

④ 南北赤十字會談 積極勸誘

⑤ 常設直通 電話架設

⑥ 南北調節委員會構成 運営

⑦ 合意事項을 実行할 것을 民族앞에 約束한다는 七個項에 對한 合意事項中에 實際的인 內容解沢에 雙方의 見解差異이 있었던 것은 事實이나 北韓에서는 7.4 南北共同聲明에서 合意된 統一의 原則들이 마치 金日成이가 主張하는 統一構想을 南韓에서 받아들인것 처럼 斷定하고 實踐面에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 外交등 同時的 合作論을 내놓은가 있다.

이러한 同時合作戰略은 南韓이 人道的인 問題로 부터 漸次 政治問題의 解決을 위한 段階(三段階論)에 發展시키자는데 反해 北韓은 逆順의 問題 解決하자는 것이였다.

그들은 73年 3月 15日 平壤에서 開催된 南北調節委員會 第2次會議에서 뜻하지 않게 軍縮問題와 美軍撤収問題등을 提議하여 事實上 南北問題는 原點으로 되돌아간 感을 주었다.

6月 23日 체코代表團 北韓訪問을 歡迎하는 平壤市 群衆大會에서 金日成은 一連의 統一方案을 發表했는데 同 5大綱領의 骨子는

① 軍事的 對峙狀態解消와 緊張緩和

②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등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③ 南北各政黨 社會團體 各界代表로 大民族會議 召集

④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서 聯邦制 實施

⑤ UN에 單一國格로서 加入 等이다.

73年 6月 23日 韓國의 6.23 外交宣言은 二個韓國으로의 分  
斷을 意味하는데 反해 北韓側은 聯邦制로서의 單一國家形成을 主張  
하는것 처럼 宣傳해서 北에서는 統一을 希求하는데 南에서는 分斷  
의 永久化를 企圖하여 民族分斷의 責任을 全的으로 南韓側에 轉嫁  
하려는 底意를 多分히 內包하고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北韓에서 主張해온 統一論과 그 政策들은 모두 南韓의  
赤化統一을 위한 戰略 戰術的 問題로 提起되었고 이러한 方案들은  
南朝鮮革命 遂行에 보다 有利한 國內外的인 與件을 造成함과 同時  
에 革命力量을 보다 強化하는데 目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9.28 聲明도 UN 總會를 앞두고 韓國의 國際的 立場을 窮地에 빠  
트리기 위한 計略임에는 再諒을 餘치 않는다.

### Ⅲ . 平和統一提議의 虛構性

북한은 1970年 8月 21日字 노동신문社說을 통해 朴大統領의 8.15 宣言에 依한 「平和統一 構想」을 全面的으로 拒否하고 從來의 武力南侵과 暴力革命을 통한 赤化統一政策을 재천명했다. 同社說에서 북한은 統一을 위한 唯一한 手段은 南韓을 전복하는 것이라고 主張하고 이를 위해 북한을 所謂 革命基地로서 계속 強化해야 한다고 力說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71年 4月 12日 「最高人民會議」에서 外務相 許 淡은 8個項目的 統一方案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本質的인 面에서 북한이 從來부터 主張해 오던 內容과 別로 달라진것은 없고 戰術的으로 새로운 陷穽을 파놓고 있다는 점을 看過할 수 가 없다. 이는 61年 勞動黨 第4次大會以後 처음으로 統一提議를 綜合 整理한 것으로써 70年代 북한의 統一戰略이며 戰術을 反映하고 있다는 點에서 同方案에 對한 分析은 大端히 有益한 問題라 생각한 다.

8個項의 統一方案은 첫 句節부터 戰鬪的이다. 첫 머리에서 韓國의 現政權이 打倒되고 「南朝鮮에 人民의 政權이 서거나 愛國的인 새사람이 南朝鮮 政權에 올라 앉게 된다면」 그와 平和統一問題를 協商할 것이라고 前提하고 이른바 8個項에 對한 平和統一方案을 列擧했다. 여기서 말하는 人民의 政權이란 概念은 共產黨이 主導하는 政權을 意味하는 것인데 이런 提議를 하게 된 動機는 時期的으로 이 當時 韓國에서는 大統領選舉를 앞두고 있었던 時期였기 때문에 선거 結果 人民의 政權이 서든지 「애국적 새사람」 다시 말하면 野黨候補가 大統領에 當選되는 것을 期待했던 것이며 또 다른 動機는 朴 正熙大統領의 8.15 宣言에 對한 惡酬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同宣言에서 너무나 큰 衝擊을 받았는지 잠시 沈黙을 지키다가 同年 8月 21日 勞動신문과 8月 25日 字 북한內閣기관지「민주조선」을 逆해 비로서 反應을 나타냈는데 그것은 批評에 重点을 두고 統一方案에 關해서는 部分的으로 言及을 했을 뿐이다. 더우기 8.15 宣言이 對內外的으로 많은 支持와 幅넓은 呼応을 받게 됨으로써 北韓의 平和統一宣言이 眞實性이 없는 허위임을 보다 뚜렷히 드러나게 했다. 北韓은 이와같은 不利한 立場을 벗어나기 위해라도 소위 平和統一의 方案을 다시 宣傳의 이고 體系의인 形態로 發表해야 하겠다는 意圖에서 8個項目의 統一方案을 提案하게 된 것이다.

70 年の 노동당 제 5 차대회에서 統一問題에 關한 主張으로서 戰爭準備과 暴力革命에 重点을 두었고 더우기 南.北韓의 現狀況에서는 平和統一問題를 論議 할 수 없다는 김영주의 9.28 聲明에서도 統一에 關한 북한 공산당의 基本立場은 더욱 明確히 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統一方案들이 모두 眞實性이 없고 偽裝된 術數임은 다시 말할 必要가 없지만은 그들의 虛構性을 具體적으로 指摘한다면,

첫째 북한의 提案이 非現實的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主張은 實現可能性이 없는 그야말로 非現實的인 內容만을 羅列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의 主張이 現實的인 것이 될려면 적어도 相對方이 理解하고 이를 受諾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북한의 統一方案은 一方 通行的인 內容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例를 들면 6.25 南侵의 張本人인 북한自身이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을 포기했다는 確證도 提示함이 없이 南韓에서 美軍을 撤収시키며 韓美相互防衛條約을 폐기하고 南北韓軍隊를 10 萬以下로 줄이자는 主張은 韓國으로서 도저히 受諾 할 수 없는 非現實的인 提案으로서 實現可能性을 考慮해 보지도 않은 虛構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들의 提案과 그들의 實際行動이 전혀 合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8 個項目의 統一方案을 내놓은 以後에도 北韓은 平和統一과는 正面으로 對立되는 侵略行動을 中斷하지 않고 있을뿐만 아니라 더욱더 強化하고 있는 實情이다. 72 年 金日成의 新年辭에서도 強調된바와 같이 戰爭準備는 계속 強化해야 한다고 公開적으로 公言했고 最近 7.4 南北共同聲明의 基本精神에 背馳되는 挑發行爲를 公同연히 姿行하여 모처럼 不信을 씻고 信賴를 되찾고자 하는 南北關係의 希望을 송두리채 앗아가고 있지 않은가!

북한은 그것이 虛構的이 아니라고 證明하기 위해서 即時 戰爭準備를 그만두고 南北間의 緊張緩和에 行動과 實踐으로 誠意를 보여야 할 것이다.

북한의 統一戰略은 南韓에 共産黨이 主導하는 이른바 人民政權이 서지 않는 限 平和的 方法에 依한 統一은 不可能하다고 서슴없이 公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平和的 統一이라는 것도 革命에 依한 方法으로서 이를위해선 間諜과 武裝共匪를 兩派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金日成은 南조선인민들의 革命鬪爭을 支持성원해야 한다고 力說했다. 이들은 어떤方法에 依해서든지 南韓赤化의 可能性을 示唆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實際로 이를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은 周知하고 있는 事實이다.

以上과 같이 북한의 統一戰略은 平和統一과 全的으로 어긋난 것이며 그들의 主張이 처음부터 끝까지 虛構性으로 一貫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로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에서의 북한의 態度와 主張에셔도 그들의 平和統一方案이 虛構的임을 明白히 들어내고 있다.

71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の 提議에 依해 南北으로 合어져 살  
고 있는 血肉之間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人道主義的 問題를 解決  
하고자 南北赤十字會談이 열렸으나 北韓側은 이를 赤化統一에 目的을  
둔 그의 統一戰略에 利用할려는데 급급한 나머지 問題解決에 無誠意  
하게 對함으로서 同會談도 期待했던 바와같이 進展되지 못했다。 人  
道的인 問題를 政治的 目的의 手段으로 利用하려고 하는 것은 非人  
道的인 處事가 아닐 수 없으며 真正으로 南北分斷에 依한 이 民族  
의 苦痛을 解決할 意思가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北韓의 統一目的은 絶對的이지만 그 政策과 戰略 및 戰  
術은 그 目的을 達成하는데 얼마만큼 效果的으로 寄與하느냐에 價值  
判斷의 基準을 두기 때문에 主客觀的 情勢의 變動에 따라서 伸縮性이  
있게 統一提議에 反映된다。 50年代에는 赤化統一을 위해 戰爭보다는  
暴力에 依한 南朝鮮革命을 先行시키는데 重點을 두었기 때문에 그것  
이 統一政策과 提議에도 反映되었고 60年代에는 武力에 依한 統一  
에 重點을 옮김으로서 戰爭準備라고 하는 統一政策과 統一提議이 形  
成 되어진 것이다。 이런點에서 볼 때

북한 公産黨은 非現實的인 統一案을 政治的 宣傳目的을 위해 無責  
任하게 誇張함으로써 自己들이 가장 民族的인 統一을 念願하고 또  
自己들만이 自主 平和的인 統一을 追求하는 集團으로 錯覺시켜 國際  
적으로 傀儡의 地位를 脫皮하며 또 南北 同格의 地位向上을  
노리고 아울러 國際的 基盤을 確保하고 있는 韓國을 孤立시키려는  
意圖인 것이다。 이것은 북한自身的 好戰性을 對內外的으로 음쇄乃至



偽裝하는데도 目的이 있다。賊反荷杖으로 6.25 를 도발한 그들이 北侵했다고 떠들어대는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正體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相互誹謗을 하지말자던 7.4 共同聲明에도 아랑곳없이 國家元首에 對한 非難과 辱說, 政府와 國民을 離間시키기 위한 欺瞞과 謀略, 그리고 유령방송인 統革黨의 목소리 등은 그들의 虛構性을 如實이 들어내고 있는데 그 統計를 參考하면 別表와 같다。

7.4 南北共同聲明 이후 北韓側の 相互誹謗違反統計

	期 間	特定人士	政府施策	韓美日 關 係	流言 蜚語	計
유 령 방 송 소 리	72. 7. 4 ~ 11. 10	103	73	33	112	321
	72. 11. 11 ~ 73. 1. 25	32	20	15	48	115
	73. 1. 26 ~ 2. 15	27	18	12	38	95
	73. 2. 16 ~ 4. 15	126	52	26	156	360
	73. 4. 16 ~ 5. 22	15	62	29	113	219
	73. 5. 23 ~ 6. 28	36	73	40	104	253
	73. 6. 29 ~ 7. 31	57	152	28	75	312
	73. 8. 1 ~ 8. 31	91	145	27	85	348
累 計		487	595	210	731	2,023

北韓은 이기 지난 60年代 全般에 걸쳐 戰爭準備에 狂奔해 왔음

을 實吐해 왔고 또 그들은 軍事力強化의 必要性을 계속 力說해 오면서  
또 對外的으로 平和를 위한 軍縮問題를 拳論하고 있다. 지난 7個年  
計劃期間中 北韓은 基本建設投資에 相當한 軍事費를 支出했고 男女老少  
할것 없이 軍事訓練을 義務化하고 北韓地域을 完全히 兵營化해 놓았다,  
北韓地域을 보고온 外國記者들은 戰時를 彷彿케 할만큼 戰爭분위기에  
 휩싸여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金日成은 日本 요미우리  
記者와의 會見에서 所謂 南北韓間의 平和協定締結을 提議하고 있으며,  
8.15 宣言에서 明白히 나타나 있는바와 같이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  
이나 暴力에 依한 大韓民國의 顛覆을 企圖해 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  
히 포기하겠다」는 것을 内外에 宣布하라는 要求에 對해서 一切의 反  
應을 보이지 않았던 北韓이 새삼스럽게 平和協定을 締結하자고 提議하  
는 底意는 어디있는가?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의 広場이 마련되었어도 이를 外面하면서 統一  
의 根本問題가 아닌 平和協定이나 軍縮을 拳論하여 새로운 争点を 拡  
大시키려는 意圖는 무엇인가? 信賴에 바탕을 두어야 할 南北對話과정  
에서 不信을 增大시키면서 平和協定, 軍縮云云은 提議內容이 虛構的이며,  
獨善的임을 且置하더라도 多分히 政略的 目的을 隱蔽하고 있음을 警戒  
하지 않을 수 없다.

## Ⅳ. 統一戰略의 和戰兩面性

### 1. 南朝鮮革命路線

세계의 共產化를 最終目標로 삼고있는 共產主義는 이를 達成하는 基本方法으로서 暴力革命에 의거하고 있으며 同時に 暴力革命에 依한 政權탈취는 基本的인 原則으로 되어 있다. 레닌에 依할것 같으면 「戰爭은 다른 手段 즉 暴力的 手段에 依한 政治의 延長이다」라고 했다. 이와같이 북한이 暴力革命의 性格을 基本으로 赤化統一의 基本目標를 遂行하기 위해 戰術上으로 등장시킨것이 이른바 「南朝鮮革命」路線인 것이다. 金日成이 提示한 休戰以後의 平和的 統一이란 戰爭으로 完全히 破壞되어 버린 북한地域의 復舊에 全体人民들을 總動員하기 위한 口實과 手段에 不過했던 것이다 1956年 4月 북한 노동당 제3차대회에서 金日成은 中央委員會 事業總決報告를 통해 「오늘 비록 남반부 人民들의 투쟁이 高度로 양양되어 있지 못하나 그들이 북반부에서 達成된 모든 成果에 고무되면서 앞으로 祖國의 民主主義的 統一을 위한 투쟁에 결정적으로 일어서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라고 했고 또 「우리 革命이 아직도 우리나라 全体性으로 토와서 우리는 북반부의 人民民主主義의 制度를 더욱 강화하는 同時に 남반부 人民들의 역량을 단결시켜야 하겠습니까」라고 甘言利說을 퍼트렸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떤 계층을 對象으로 또 어떠한 路線下에서 어떤 戰略과 戰術에 입각해서 투쟁을 하느냐에 대한 뚜렷한 方向은 提示되지 않고 그들이 북한지역 共產化에 適用하고 있는 소위 反帝 反封建 民主革命만을 내세웠었다.

북한이 오늘날 韓半島의 赤化를 위해 南韓地域에 派用하고 있는 南朝鮮革命이란 말은 그性格上 上述한 反帝 反封建 民主革命이란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기는 하나 보다 뚜렷한 路線의 轉명은 61年 9月 11日에 열린 노동당 제4차당대회에서 金日成은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하여)를 통해 「남조선에 있어서의 革命은 제국주의를 反對하는 민족해방혁명이며 봉건세력을 反對하는 민주주의 혁명입니다…… 남조선인민들이 反帝 反封建투쟁을 成果的으로 進行하며 이 투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하며,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의 이익을 대표하는 혁명적 당을 가져야 합니다…… 혁명적 당이 없었고 명확한 투쟁 강령이 없었으며 따라서 기본군중인 노동자 농민이 항쟁에 광범히 참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4월 봉기(4.19의거)는 철저히 조직되지 못하였으며……」라고 북한住民들을 欺瞞煽動했던 것이다 북한 공산당이 南朝鮮革命에 對한 可能性을 打診하게 된것은 自由党政權을 타도했던 4.19 때 임에는 틀림이 없다. 金日成은 休戰以後 많은 間諜을 南派시켜 韓國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攪亂과 전복을 勸誘했고 심지어 地下黨組織을 위한 工作을 해오던中 4.19 革命이 일어나자 그들의 工作에 依한 人民革命이 아닌가 樂觀的인 見解마저 갖게 됐지만 이혁명이 眞正한 自由民主主義의 守護를 위한 學生義舉로 判明되자 크게 失望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산당이 工作하여 잘 선동만하면 南韓에서 人民革命의 蜂起가 可能한 것으로 判斷하여 이러한 意圖에서 案出된것이 바로 4차 당대회에서 밝혀진 「南朝鮮 革命路線」인 것이다. 人民民主主義 革命으로써의 남조선 혁명노선은 1965年 4月 14日 인도네시아의 <알

리, 아르함 > 社会科学院에서 行한 金 日成의 演說로 더욱 定式化되었고 66年 10月 5日 労働者 代表者 會議에서 行한 그의 報告演說을 通해 보다 具体化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67年 12月 16日의 소위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 政府綱領과 68年 9月의 朝鮮勞動黨 創建 20週年式典에서 行한 그의 報告 70年 11月의 第5次黨大會에 行한 그의 中央委員會 事業總和報告 등을 通해 계속 強調되어 왔다.

9 2월 20日 그의 兩朝鮮革命路線은 南韓에서의 人民 民主主義 革命路線이며 이 人民 民主主義 革命路線은 그의 平和統一論의 戰略 戰術이다. 68年 12月 북한 政權樹立 20週年을 맞아 金 日成이 行한 報告속에는 前例없이 強硬한 侵略路線이 露出되었는데 그는 「人民들의 自由와 解放은 투쟁이 없이 저절로 이룩될 수 없으며 인민들은 오직 혁명적 방법에 의해서만 주권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혁명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조성된 주객관적 정세에 맞게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합법투쟁과 비합법투쟁, 폭력투쟁과 비폭력투쟁 작은 규모의 투쟁과 큰 규모의 투쟁과 같은 여러가지 투쟁형태를 옹기 매합하여 혁명투쟁을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方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와같이 그들이 表明하고 있는 남조선혁명路線의 履行方途가 순전히 暴力에 依存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또 金 日成은 「祖國統一의 基本方針은 남조선에서 모든 外國軍隊를 철거시킨 다음 어떤 外勢의 干渉도 없이 조선인민 自身의 손에 依하여 自主的으로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남북통일을 實現하자는 것」이라고 되풀이 하였고 이 統一의 方案은 自主的이며 民主主義的인 主体思想의 具現이라고 宣稱했다. 金 日成의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究의 이른바 「自主性」을 公的으로 宣稱한것 1966年 8月 12

日字 노동신문의 「自主성을 옹호하자」는 社說에서 였다 65年 4月 蘇聯 共産党 第 20 次 大會를 계기로 中蘇紛爭이 發生한後 이것이 深化擴大되는 과정에서 國際共産主義의 單一體制가 붕괴되고 多元化的의 물결이 일게되자 이들 國家에 依存하여 兩大國사이를 방황해야 했던 북한의 立場에서는 不得已 스스로의 活路를 主体的 立場에서 開拓해야 할 情勢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蘇聯의 修正主義 中共의 敎條主義 그리고 兩國의 大國主義를 同時에 비판하면서 朝鮮노동당의 自主성을 定立하는 運動을 적극적으로 展開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平和統一案도 自主성의 ایده올르기에 依하여 재천명되고 合埋化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들이 主張하는 自主的이란 具體적으로는 兩韓으로 부터 美軍과 UN軍을 철수한 後 朝鮮사람 즉 北한 人民의 手에 依해서 統一을 實現해야 한다는 것이며 民主란 全體人民의 自由意思에 依하여 平和的으로 統一되어야 한다는 欺瞞인 동시에 主体思想에 입각해있 한다는것은 金日成의 思想이 主体가 되어 共産政權이 樹立되어야 한다는것을 前提로 한것이다. 이와같은 方針에서 南朝鮮 혁명路線이 具體化되고 있다 干先 兩韓에서 美軍을 철수시킨 다음 兩韓에 人民政權을 造作하는것이 當面目標이고 平和的 統一이란 이와같은 條件이 成熟되고 난 以後 그들이 造作한 人民政權과 聯合하는것을 意味한다 그들은 「우리나라에서의 祖國統一은 兩朝鮮의 革命을 前提로 하는 祖國統一이며 朝鮮 民主主義 人民公和國 기치하의 統一이다」라 못박고 있다 그러나 單純하게 分裂된 國土와 民族을 統一하는 것이 아니라 兩韓에서 革命을 일으켜 社會主義 制度를 樹立할것을 指向하는 것이기 때문에 兩朝鮮革命은 社會主義 革命의 完成을 위한 朝鮮혁명의 한 部分인 것이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統一의 客觀的 條件으로 南朝鮮革命 人民 民主主義 革命力量以外 國際革命力量을 들수 있는바 이것은 國際社會에서 韓國의 立場을 不利하게 孤立시키고 相對的으로 北韓의 支持勢力을 擴大하자는 것으로써 具體的으로는 反美 反日 反韓勢力을 구축하려고 하는것이다. 여기에 北韓의 社會主義 革命力量이 成熟된 決定的 時期에 赤化統一을 爭取한다는 것이다. 金日成이 朝鮮 人民공화국 창건 스무돛기념 중앙경축 대회에서 「우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오직 南조선에서 現政權을 뒤집어 엮고 공산주의자들이 政權을 쥔 다음에야 實現될 수 있다」고 力說했던 바와 같이 南조선혁명路線이란 全休韓半島의 赤化를 基本目標로 하는 北韓의 統一路線의 한 部分입이 틀림이 없고 그들이 統一路線을 追求하는 戰略 戰術이란 暴力 및 戰爭의 手段에 입각해 있다는 態度를 明白히 밝히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은 기만적이고 假面的인 平和統一論만을 내세우고 있다. 그들은 南조선혁명이 主된 動力對象으로서 勞動者 農民을 目標로 하고 있고 이 主力을 支援할 수 있는 勢力으로 인테리 (intelligentsia)와 그들 勢力間의 橋梁的 役割을 담당할 青年 學生을 指目하고 있다. 지금까지 數많은 兩派間諜의 投入도 南朝鮮의 革命力量을 구축하기 위한 것임은 再言을 要치 않는다.

## 2. 偽裝된 統一戰略

北韓은 8.15以後 現今에 이르기 까지 始終一貫 祖國의 平和 統一을 위해 努力을 해온것 처럼 宣傳하고 있다 其實 말로는 平和 自由 民族統一을 數없이 해왔을지 모르지만 이 民族의 統一을 가로 막고 民族相殘의 6.25 悲劇을 유발한 張本人이 바로 北韓 공산당이

라는 事實을 想起할때 공산당의 兇惡한 陰謀와 破廉恥에 다시 한 번 분노를 느끼게 되며 그들의 主張이 얼마나 不當性과 虛構에 차 있는 것인가를 實感케 한다. 北韓은 表面上으로 平和統一을 願하는 듯한 印象을 内外에 풍겨 왔으나 內面的으로 무자비한 共產化 統一을 圖謀해 왔음을 注目케 한다 그동안 北韓이 攻勢를 꾀은 平和統一提 案의 넷가지 特徵은 具體性과 實用性이 欠如된 同一한 內容의 主張 을 繼續적으로 反復하고 있다는 點과 또 情勢의 變化에 따라 實踐 可能性마저 없는 內容을 宣傳 爲主的으로 하고 있다는 點등이다.

北韓은 4단계에 걸친 平和統一方案을 提案해 왔는데 제1단계 (남침 준비를 위한 陽動作戰으로서의 평화공세)는 8.15로 부터 6.25 남 침때 까지로서 北韓은 UN의 統韓決議의 無効化와 韓國의 合法性 否認에 重點을 두고 南侵을 음모하기 위한 平和統一 政勢를 取했었다 當時 北韓은 南北韓 人口比例상의 弱點과 全國的인 共產主義勢力의 劣勢때문에 UN決議에 依한 平和的인 統一政府 樹立에 反對했고 蘇聯의 積極的인 支援下에 武力에 依한 統一을 계획하여 마침내 6.25 南 侵을 감행했던 것이다.

제2단계 (再侵準備와 美, 蘇平和共存에 편승한 平和戰略定立)는 1953 年 7月 27日 停戰協定 調印으로 부터 61年 北韓 노동당 제4차 당대회기간에 北韓이 行한 平和攻勢이다. 北韓은 戰亂으로 황폐해진 產 業施設과 戰力으로 整備強化하기 위한 時間을 벌기 위해 54年 제네바會 議에서 내놓은 提案은 增強된 한국군을 念頭에 넣고 南北韓 軍隊를 1年內에 10萬名으로 減縮하며 6個月 內에 一切의 外國軍을 철수 시 키자는것과 極東에서의 平和維持에 가장 關心을 가진 該當國家들로 부 터 「조선의 平和的 發展」을 보장 할 것등을 主張했던 것이다.



제3 단계 (暴力, 전복노선의 음폐를 위한 平和攻勢)는 5.16 軍事革命으로 부터 69年 Nixon: Doctrine 이 表面化되기 까지 北韓은 韓國의 政治的 安定과 急激한 經濟成長을 방해 할 目的으로 積極的인 對南도발을 감행하면서 이를 偽裝하기 위해 내세운것이 그들의 상투적인 平和攻勢였다. 이 時間에 김 신조등 31名의 武裝共匪에 依한 청와대기습사건이 일어났고 大規模의 계리라를 울진, 삼척 등지에 侵透시킨 事件과 프예블로프 拉致事件 EC.121 격추 事件등 積極的인 對南挑發을 가행했고 한편으로는 24차 UN총회에 提出한 備忘錄에서 北韓은 ① 한반도에서의 外國軍의 철수 ② 어떤 外勢의 干涉없이 民主主義的 基礎 위에서 南北 총선거를 通하여 統一된 中央政府를 세운다는 主張을 했다.

제 4 단계는 國際緊張 완화趨勢에 應答하는 平和戰略으로 전환한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무렵 北韓의 對南挑發로 高潮된 한반도의 緊張狀態가 위험선에 이르게되자 北韓의 모험적 도발을 견제하려는 蘇聯의 制勳이 加해지기도 했다 美國의 非아시아 政策의 表明과 越南에서의 徵收 등 一連의 국제정세의 變化는 北韓의 호전적인 對南도발을 견제하기 위해 69年 5月 19日 蘇聯 최고소비에트 간부회의장 「프드코르너」가 平壤을 訪問케 했고 그무렵에 北韓은 평화공세를 積極化하는 面도 보였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北韓이 平和統一方案은 그들의 赤化統一戰略을 음폐하기 위한 假面일 뿐이며 그들의 眞意는 北韓 勞動黨 規約(1961 9.18 수정) 前文에 明記되어 있다 싶이 「黨의 當面目的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國的 범위에서 反帝 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目的은 共產主義社會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했고 노동당 제 4차대회에서 決定된 統一戰略은 ① 南韓에서의 共產地下黨의 組織 및 擴大 ② 地下黨을 核心으로 勞動者 農民 小市民 青年 學生 知識人 그리고 民族資本家까지 포함한 広範한 소위 「反美 救國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權鬭爭 ③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으로 거치는 赤化統一을 實現한다는 이른바 3段階 統一戰略을 確定했고 그후 金日成이 數차례 걸친 公式發表에서도 兩朝鮮革命의 性格과 이에 對한 北韓의 積極的인 支援이 노골적으로 強調되어 왔다. 이를 위해서 北韓은 62年 12月 黨全員會議에서 國防力 強化가 力說되었고 66年 10月 第2次 黨代表者會議에서 4大 軍事路線이 黨政策으로 公表되어 再南侵과 戰爭挑發음모에 狂奔해 왔던 것이다 休戰以後 北韓의 協定위반과 각종 武力挑發 件數는 무려 1萬件이 넘는 實情에 있으며 더구나 北韓은 今年들어 地上軍 3個旅團을 師團으로 增編했고 開城地域에 1個戰車聯隊를 新設하였으며 17個 步兵師團에 1個식의 戰車隊를 새로 配屬하고 잠수함 2척 어뢰정 20척을 새로 導入하고 誘導彈경비정 2척 驅逐艦 2척도 新規導入했다 空軍도 15台의 新型戰鬪機와 AN-2 24台 對空 미사일 5個所를 增設하는등 武力增強에 狂奔하고 있는 意圖는 한마디로 北韓이 武力赤化 統一의 準備를 계획적으로 進行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北韓은 今年 6月 23日에 非現實的이고 허황스러운 所謂 「平和統一 5大綱領」을 내세우고 새로운 攻勢를 取하고 있다 骨子는 ①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緊張狀態완화 ②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의 實現 ③ 各界 各層의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구성되는 大民族會議 召集 ④ 聯邦制 實施 ⑤ 單一國號에 依한 UN加入을 主

장 하면서 언커크解体 外國軍撤収, UN軍司解体등을 要求하고 있는데 北韓은 이번 28次 UN總會에서 會員國들에게 配付한 備忘錄속에서 例年과 多름없이 왜곡된 宣傳과 모략 中상으로 一部會員國들을 眩惑하려는 意圖를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과 UN관계를 断切시키고 그들의 赤化統一에 가장 障害가 되는 美軍을 철수 시킴으로서 軍事的인 優位를 占할 수 있다는 것이 武力 赤化統一의 基本戰略이 되어 있다 北韓은 正規軍 47萬以外도 正規軍과 多름없이 武装되고 訓練된 140萬의 勞農 赤衛隊와 70萬의 붉은 青年近衛隊가 있으며 4大軍事路線에 依한 全人民의 武装화가 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런 事實에는 아무런 言及이 없고 UN軍과 美軍의 철수만을 주장하는것은 한반도에서 힘의 均衡을 破壞하자는 底意가 감추워져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의 平和統一攻勢는 처음부터 矛盾과 欺瞞에 찬 虛構的인 것이며 武力赤化 統一路線을 음폐하기 위한 方便으로 利用되어 왔던 것이다.

특히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考慮해야 할 點은 赤化政策의 遂行을 위해 人民을 戰爭準備에 動員하게 될때 北韓 공산당은 兩韓이 그들의 平和統一을 拒否하기 때문에 이기기위해 戰爭을 準備하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對內的으로 金日成 唯一思想으로 一絲不亂하게 結束해야 한다고 속일수를 쓰게 된다. 그럼으로 북한 社會가 보다 開放된 狀態로 變化될 수 있도록 現在의 閉鎖性을 崩괴시키는 問題는 重要하다고 본다.

북한 住民이 보다 넓은 世界를 볼 수 있도록 해서 客觀的인 判斷의 基準을 갖도록 하는것은 共產黨의 欺瞞性에서 北韓住民을 救하는 길이 되는것이다.

우물안개 개구리처럼 外部世界를 外面하고 있는 閉鎖的인 北韓社會를

국제사회에 끌어 드린다고 하는 것은 南北關係의 發展과 韓半島의 平和  
定着을 위해 大端히 有益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6. 23 外交宣言은 南北韓이 現實的인 次元에서 相互交  
流 할 수 있는 善意의 競争을 밝힌 決意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精  
神에서 南北關係가 새롭게 進展되면 世界속의 韓民族問題가 活潑하게  
論議되어 질 것이며 平和的인 統一에 關한 眞摯한 모색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그러나 北韓 共産黨의 本質이 改造되지 않은 限 武力統  
一의 野慾은 포기하지 못 할것 이므로 오직 外部的인 強制에 依해서  
만이 公産黨의 불작난을 견제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 V. 北韓의 平和統一攻勢에 對한 對備策

解放以後 지금까지 北韓이 提案해온 數多한 平和 統一案들의 內容을 集約 整理해 보면 그 共通點으로 첫째 外國軍의 撤収, 둘째 南北間의 간격 消除, 셋째 平和 統一의 分畛氣 造成등 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모두 共產主義 基本戰略에 根拠하고 있는 것이다.

金 日成의 對南 基本戰略은 赤化統一에 두고 있으니 만큼 아무리 平和統一을 노래한다 해도 이 노래는 武力統一의 手段일 뿐인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確實한 根拠는 黨의 決議와 各種의 公式文書 등에서 엿볼 수 있지만 더욱 뚜렷한 것은 民主基地로서 要塞化하려는 그들의 軍事政策과 經濟計劃 등에서 북한은 軍事力 增強에 全力을 다 해왔음을 알게 된다. 67年 以後 公式的인 豫算에서 軍備의 比率을 보면 67年度에 30.4% 4억 6천 7백만불 68年度에 32.4%인 6억 1천만불 69年度에 31%인 6억 2천 6백여만불 70年度에 31%인 7억 4천 6백여만불이었다. 그리고 71年度에 公式的으로 發表된 북한의 歲出豫算은 28억 2천여만불로 알려져 있는데 그중 軍事費支出은 8억 4천 6백여만불로서 韓國의 3倍에 該當된다. 또한 북한은 軍需産業에 置重하여 6천톤 프레스, 8m터너관 25톤급 중량자동차 3백마력의 불도자 2천마력의 디젤기관등을 生産하는 工場을 兵器生産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專門的인 軍需工場 以外에도 100余個의 工場이 營기창이 되었다고 한다.

71年 5月 以後 이른바 「향일부정 작전」은 奇襲攻襲을 前提로 한 특수작전에서 얻어진것으로 全軍에 對하여 냉훈련을 實施하고 各種의 유격전술의 습득과 訓練—原子戰에 對備한 공격작전 艱道방어 및 竊襲, 아간포 사격 기습훈련— 그리고 海軍의 기뢰부설 대함공

적 대공포 사격 잠수함 훈련은 말할것도 없고 항공기에 의한 夜間  
낙하산 강하훈련 야간 爆擊演習 訓練등에 狂奔하고 있다.

한편 이들은 每年 100萬톤씩 도합 300萬톤의 식량비축을 비롯한  
各種 軍需産業의 地下화로 유사시에 對備하는 등 한마디로 赤化統一  
을 위한 만반의 準備를 갖추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武力  
赤化 統一의 野心을 버리지 않는 限 한반도의 緊張은 解消될 수  
없음은 當然한 일이다.

革命力量을 축적하고 成長시킨다는 것은 戰爭과정에서 혁명역량이  
辯証法的 發展을 期해야 한다는 意味이므로 戰術面에서 暴力戰爭을  
展開하지 않는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공산주의 혁명운동에서 決定  
的인 時期가 어떤것인가에 關해서 스탈린은 「러시아 共產主義者의  
政治的 戰略과 戰術」이라는 論文에서

첫째 大衆의 혁명적 기분이 팽배하여 共產黨이 提示한 行動 을로  
전보다 大衆의 運動이 앞서고 있을 때

둘째 敵陣營에 있어서 絶望 混亂 頽敗 崩壞가 絶望에 達했을 때

셋째 이상의 두가지 契機가 時間的으로 合致될 때라고 指摘했다.

이것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南韓革命運動을 전개함에 있어서의 決  
定的 時期는 다음과 같은 情勢를 가리킨 것이라고 하겠다. 즉 南  
韓의 共產 容共勢力의 조직이 孤大되어 政府가 이를 막기 어려울  
만큼 強化되거나 政府와 國民의 結束이 弱화되어 북한 공산주의자들  
에게 虛点을 보이게 될 때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由民主王  
義에 對한 信念을 가지고 共產主義와 싸워 이길 수 있는 精神力을  
堅持해야 겠고 또 그들의 挑發을 直接무찌를 수 있는 힘 一軍事力  
과 經濟力, 輿論을 支配할 수 있는 힘 一을 確保해야 하겠다.

북한의 各種挑發에 이길 수 있는 能力을 各方面에서 기르고 이를

더욱 強化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어느 때 보다도 賢明한 判斷과 自制力을 갖고 여러 形態의 挑戰에 対応해야 갖고 이를 바탕으로 國民의 一體感 形成을 위한 國民協同의 精神的 基盤을 튼튼하게 構築해 가나 할 것으로 믿어 大略 다음과 같은 對備策을 강구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 (1) 對北政策

우리의 統一問題는 종던 喪던間에 共產主義者와의 協同과 協力 내지는 說得이 없이는 어려운 問題이기 때문에 統一政策의 樹立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戰略의 分析 檢討는 絶對적으로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이미 考察한 바와 같이 北韓의 赤化統一 戰略에 対応하기 위해서 必要한 措置가 講究되어야 하겠고 보다 積極的인 意味에서는 北韓의 對南戰略의 方向을 우리가 바라는 方向으로 誘導 할 수 있는 能力을 갖어야 하겠다. 우리의 国力이 허술해서 6.25 動亂이 발발했다고 是認한다면 表現을 달리해서 우리가 6.25의 悲劇을 目招한 一端의 責任도 느껴야 하는 것처럼 北韓의 再侵을 豫防하고 우리의 諸價值를 固守하기 위해서는 不斷이 国力을 기르지 않을 수 없다.

現在 北韓은 戰爭準備을 強化하기 위해 侵略的 軍事體制를 確立하고 全人民의 武裝化와 戰爭思想의 鼓吹, 全地域의 要塞化, 裝備의 增強등으로 北韓 住民을 얽어가고 있다. 다시 말 하자면 非軍事的 側面에서도 勞動黨의 對南事業部를 強化하고 있는데 61年度에 131萬名이었던 黨員數를 70年度에는 160萬名으로 擴張하여 金日成 唯一思想에 依한 北韓體制의 思想的 要塞化를 推進하는 한편 狂信的인 金日成 偶像化와 社會主義的 愛國主義를 鼓吹하기 위해 民族分裂를 極度로 획책하고 있다. 戰爭準備에 動員하기 위하여 戰爭 不可避論

를 提示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一方的인 脚本과 演出로 계획된 反美감정과 大韓民國 政府에 對한 誹謗 惡宣傳을 늘어 놓게 되는 것이다.

이번 UN 總會에 比친 北韓의 備忘錄에서도 天下가 共認하는 6.25 南侵을 美軍에 돌려 그 責任을 免하려고 하고 있으며 또 北韓은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해소하기 爲한 5個項目의 提案을 내놓았으나 이를 反對한 것이 南韓當局이며 南北對話의 뒤에 숨어 戰爭準備와 軍事訓練에 狂奔한 것도 南韓이며, 南北共同聲明을 위반하면서 無數한 애國자를 투옥 처형하고 南北間의 幅넓은 政治協商 會議을 反對한 것도 南韓이며... 北韓의 성의있는 忍耐性있는 努力에도 不拘하고 南韓의 표리부동한 行動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 사이의 對話는 停滯狀態에 빠지고 祖國統一의 밝은 展望은 도로 흐려지게 되었다」고 터무니 없는 억지를 쓰고 있다. 그러므로 外部社會와 거의 接觸이 없는 北韓에 自由의 물결이 흘러들어 갈 수 있도록 段階的이고 兪展的인 交流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南北對話의 차-널은 이러한 期待를 充足시켜줄 수 있는 한 方法이 될 것이다. 特히 日本에 살고 있는 우리 僑胞에 對한 長期的 對策의 樹立은 重要的 問題가 아닐 수 없다.

現在 北韓社會가 外觀으로는 兵舍的 要塞化가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世代間의 갈등, 黨員과 非黨員(核心層 28%, 動搖層 21%, 越南家族, 宗教人, 숙청者家族, 北送者 등 敵對階級이 全體의 51%) 間의 對立이 激甚하고 金日成家族의 族閥政治에 對한 抵抗이 없지 않고 보면 北韓住民을 閉鎖的인 狀態에서 解放시키는 問題는 계속적으로 研究 檢討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2) 對外政策

激變하는 70年代의 國際情勢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外交 감각下에서의 座標 設定을 不可避하게 했다。 特히 美國의 對中共 接近 政策이라고 하는 코페르닉스의인 政策轉換은 冷戰外交에 終止符를 찍어버리는 듯한 충격을 주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 四極構造의 勢力關係가 形成되려는 이때 우리外交의 向方도 새롭게 定立되어 저야 함은 當然한 論理인 바 現在 政府에서 提示하고 있는 外交目標는 總力 安係外交로서

첫째 總力 安係外交를 爲한 對美, 對日外交의 強化

둘째 機動性있는 UN 外交

셋째 共產圈과의 關係모색

넷째 脆弱國에 對한 집중 技術협력의 提供등이다。

한반도의 平和維持와 韓國의 安全保障을 論할 때 對日 對美政策은 우리外交의 核心部分으로서 무엇보다도 이들 友邦國家들과와의 外交는 더욱 強化되어야 함은 다시 말할 必要조차 없다。 北韓은 그들의 赤化統一政策의 달성을 위해 機會만 있으면 駐韓 美軍을 한반도에서 撤去하려고 노리고 있으니 만큼 韓國의 安係에 基本的 前提가 되는 韓美 相互防衛體制는 維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急變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어떠한 狀況變動이 온다 해도 韓美紐帶關係는 緊密하게 強化 되어져야 할 것이며 Nixon Doctrine에 따라 自助力量을 기르면서 國軍裝備의 現代化 計劃도 差跌없이 수행되어 지도록 交涉되어야 할 것이다。 日本과의 關係에 있어서도 相互協力의 바탕을 굳히면서 經

濟協力을 擴大하는 同時에 國際輿論의 造成에도 있는 힘을 다 傾注 하므로서 多邊外交의 基盤이 구축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UN 外交에 있어서 Hallstein 原則을 신축성 있게 적용해서 積極的인 對中立國 外交를 展開하고 6.23 外交宣言에서 闡明된 諸原則 下에서 南北關係가 支持 發展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 非敵性國家인 共產圈과의 關係 모색도 積極 推進해야 할 것이다。

28次 UN 總會에 처음으로 南北韓이 同時參席해서 韓國問題에 關한 對決을 하게 된 이 마당에 北韓은 共產國家과 非同盟國家를 업고 美軍撤収와 언커크, UN 司解體, 南北韓 UN 同時加入 反對등 工作을 活潑하게 벌리고 있는데 이에 對한 우리政府의 統一戰略外交가 效果 的으로 遂行되어 져야 할 것이다。

그 동안 政府에서는 國家安保 国力培養 統一基盤造成등 三大外交目 標를 達成하기 爲해 1968年 以來 對中立國 外交活動費 名目으로 策定되어 있는 財源으로 北韓이 侵透하려고 노리고 있는 아프리카 地域 國家에 對해 醫療 技術協力을 提供해 오고 있는데 現在 아프리카 14個國에게 提供되고 있는 이 協力關係가 계속해서 더욱 擴大, 發展 되도록 政策的인 뒷받침을 하는 것은 大端히 바람직한 投資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外交力量의 強化 增大는 時急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 (3) 對內政策

統一基盤 造成을 위한 諸力量 確保問題에 있어서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軍事등 모든 分野의 力量구축이 必要함은 다시 말 할

必要가 없지만은 力量構築이란 祖国의 平和統一에 有利한 客觀的 條件形成의 主體的 바탕이 될뿐만-아니라 統一에의 主尊權掌握의 根本이 되며 統一의 底力이 되기 때문에 韓國社会 全般에 걸친 諸體系의 彙展的인 再整備는 切實히 懇請되어 졌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国力을 組織化하고 能率을 極大化하기 위한 尤新적 一大改革을 漸行하여 民族의 底力을 쌓아 가고 있으나 아직도 放心 할 수 없는 狀態가 尙存하고 있음을 自省하지 않을 수 없다。 統一이야말로 自由民主主義의 韓國적 存在양식을 定立하고 各 分野에서 不斷한 刷新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自信있는 國民의 協同이 集中될 때 우리에게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므로 統一은 全民族의 問題이고 「우리 民族의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民主秩序의 確立과 力量을 기르며 確固한 信念下에 國民總和를 形成하여 民主力量強化를 이룩하므로써 體制競爭에서 優位를 確保 할 수 있는 것이다。 政治와 經濟의 彙展과 調和에서 이룩되는 國民的 合意(National Consensus)와 國民的 信賴(National Confidence) 위에서 漸進的으로 統一接近을 試圖해야 한다。

強大國의 權力政治가 오늘의 國際政治의 本質을 이루고 있는 狀況下에서 오랫동안의 友誼와 名分보다는 國家利益에 依해 國際政治의 向方이 달라져야했던 冷酷한 現實을 最近의 國際關係에서 目睹해 왔다。 힘 없는 나라는 국제사회의 격랑 속에서 生存하기에 어렵고 힘겨운 事實을 実感할 때 當然히 우리의 生存과 彙展을 위해 国力培養만은 무엇보다도 緊要한 問題로서 強調되지 않을 수 없다。 最近

이스라엘과 아랍國家와의 鬪爭에서 보여준 適者生存의 敎訓은 우리의 国力評價에 좋은 資料를 주고 있다. 지금 우리는 強大國의 權力政治가 몰고 오는 熾악한 波濤를 헤쳐가야 하고 또 북녘에서 赤化統一의 機會만을 노리는 共產主義의 威脅에 直面하고 있다. 이 二重的인 挑戰을 克服하는 길은 오직 国力의 培養뿐이며 同時에 祖國의 平和的 統一의 길도 防衛産業의 育成을 비롯한 産業의 發展등 우리의 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어려운 狀況에 놓일수록 國民은 지혜와 自制力을 갖고 誠實하게 各自의 職分에 充實하므로서 國民의 一體感 形成에 緊要한 礎石이 될 것이며 이것이 북한 共產黨을 이기면서 祖國의 平和統一을 성취하는 길이라 確信한다. 끝으로 우리의 国力中에서도 無形의 要素로서 (Intangible factors) 精神的인 意識과 質의 重大함은 看過해서는 안 될 것이다. 外交의 技術 社會 政黨의 質, 國民의 士氣 民族性은 国力을 極大化하는 要素로서 緊要한 것이며 국민이 믿고 따르고 國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힘과 能力을 가진 政府의 存在는 더욱 重要 하다고 하겠다.

## Ⅵ . 結 言

지금까지 北韓의 平和統一提案의 歷史的 背景과 그들이 基本的으로 追求하고 있는 目的을 考察했다. 그러나 앞으로 北韓이 急要하는 國際情勢와 關聯하여 어떠한 합정으로 平和攻勢를 할것이며 우리는 이에 對해서 어떻게 對處해야 할 것인가를 結論지워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北韓의 統一政策은 우리의 모든 力量과 態勢 그리고 우리의 統一政策에 依해 달라 질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安保問題는 더욱 強調되어지는 것이다.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北韓 공산당이 景仰하고 있는 最終 目標가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고 또 戰爭準備의 狂奔과 武裝間諜등의 兩派등에서 나타난 軍事的 側面을 考慮한다면 우리는 北韓의 平和攻勢의 檢討에 先行하여 武力統一과 平和攻勢와의 關聯性을 考慮에 넣지 않을 수 없다. 즉 北韓의 統一政策에 있어서 平和의 概念은 純粹한 平和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民族解放鬪爭」이라는 各目下에 武力的 要素가 包含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平和概念에는 平和와 戰爭이란 二重的 性格을 갖고 있는바 金日成은 「黨과 政府가 平和的 統一의 스펙터를 높이 들면 들수록 人民軍隊는 自身の 戰鬥力을 보다 強化하고 思想的 準備를 固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主張한바 있다. 따라서 그들이 말하는 平和統一은 戰爭을 통한 統一을 排除하거나 否認하는것이 아니다 戰爭을 통한 統一亦是 平和的 統一의 범주에 屬한다고 믿고 있다. 그들은 모든 革命의 戰略戰術을 辯証法的 唯物史觀에 基礎하여 樹立하고 있으므로 金日成은 평온하고 調和된 우리社會를 相互對立하고 싸우는 混亂된 社會로 變質시켜 다침에 對立을 極限化함으로써 여기에서 새로운 質

的 變化 즉 共產革命을 產出하고자 하고 있다. 이미 北韓은 북녘 땅을 송두리채 兵營으로 要塞化했고 人民을 武裝化하여 單단의 戰爭 準備를 完了했다고 호언장담한바 있다. 그들이 아무리 平和統一을 合唱한다해도 믿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 民族에게 6.25와 같은 悲劇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며 萬一 再發된다면 이 民族은 오랫동안 悲劇의 구렁에서 헤어나지 못할것이 自明하며 1950年의 南侵보다 結果는 훨씬 悲慘할 것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韓半島에서 戰爭의 모험만은 避해보자는 것이며 아울러 高潮된 南北間의 緊張을 완화하고 戰爭의 위험을 除去하여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위한 실마리를 찾자고 하는 뜻이 南北對話의 提議였던 것이다. 이 길만이 南北間의 信賴를 回復하고 이를 바탕으로 民族의 宿願인 平和的 統一을 達成할 수 있다고 믿어 왔다.

그러나 그들은 始終無誠意한 態度로 南北對話를 그들의 合法的 對南 鬭爭의 手段으로 利用하려 했고 마침내는 一方的인 拒否를 하고 말았다. 그들이 真正으로 平和統一을 願했다면 平和統一을 希求하는 實証을 한가지라도 보일 수 있었지 안했을까? 休戰線 北方限界線內에 구축한 222個所의 콘크리트化된 攻擊障地를 그대로둔채 美軍撤収 相互軍縮 平和協定締結 등의 主張을 되풀이 하는것은 도저히 理解가 되지 않는 行動일뿐만 아니라 또 UN에의 同時加入問題만 하더라도 얼마 前까지 한국이 加入된 國際기구에 決死的인 加入을 試圖하여 IPU 와 WHO 등에 加入한 그들이 6.23 外交宣言에 依해 막상 同時 加入의 門이 열리자 이는 民族分斷을 求久化할 우려가 있으니 反對한다고 態度를 突變하는등 그들의 正體를 疑心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最近 相互誹謗行爲를 中止하고자한 7.4 共同聲明을 再開하

고 있다. 一種의 自己 過大妄想症에서 犯해질지도 모르는 武力 도발에 對해 우리는 警戒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北韓 共産黨이 民族에 對한 大罪를 犯하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이들의 無分別한 行爲를 억제하고 制動할 수 있는 길은 오직 国力을 增大하여 힘에는 힘 對話에는 對話로 相對할 수 있는 能力과 힘을 갖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國際社會에 한반도의 現實을 正確히 理解시키면서 北韓의 偽裝된 平和統一戰略戰術에 현혹되지 않는 自信과 信念으로 우리의 力量을 培養해가면 北韓의 挑発은 元分히 沮止 粉碎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參 考 文 獻

- o Amitai Etzioni, Political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Leaders and Forces, 1965
- o Hans J. Morgenthau.: Politics among nations, New york  
Altred A. knopf 1963
- o Samuel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 o A.F.K organski : world politics
- o 共產主義의 白書 : 自由아시아社
- o 韓國統一의 理論的 基礎 : 高大亞研共產圈研究室
- o 北韓의 이데올로기와 政治 (1) (2) : "
- o 국토통일 : 국토통일원 발행
- o 共產主義問題研究 : 共產主義문제연구소 발행
- o 東西獨과 南北韓 : 東亞日報社 발행
- o 統一白書 : 국토통일원
- o 勝共思想大系 : 康 仁 德 著
- o 世界共產圈總鑑 : 極東問題研究所
- o ソ連帝國主義의 脅威 : 山形誠一譯
- o 國際關係研究 : 한국국제관계연구소